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록과 성경, 18차시, 성경, 영감의 결과, 무오성과 무오성의 구별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성경, 영감의 결과, 무오성과 무오성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로 교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영감의 결과에 관한 첫 번째 요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하는 데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흔히 그렇게 불리거나 성경 자체의 신성한 기록이라고 불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지시하셔서 성경이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까?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 예수와 사도들은 원래 그에게 기인되지 않은 많은 구약성경의 진술을 하나님께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성경이 인간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 저자를 통해 인간 언어로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66권으로 구성된 한 권의 책으로, 역사에 근거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대륙에서 1,600년 이상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재능, 스타일, 개성을 가진 모든 계층의 40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인간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스어, 약간의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은 느슨한 인용과 근사치가 있는 일상 언어로, 카슨 목록, 인용문, 시와 산문, 서사와 담론, 신탁과 애가, 우화와 우화, 역사와 신학, 족보와 묵시록, 속담과 시편, 복음과 편지, 법과 지혜, 문학, 서한과 법과 지혜 문학, 실례합니다, 서한과 설교, 연과 서사시와 같은 다양한 문학 장르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약적 패턴은 히타이트 조약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가사일 표는 헬레니즘 세계의 행동 강령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성경의 인간성의 부산물인 이러한 현실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역사, 심리학, 자녀 양육, 시, 음악, 도덕법, 정치법, 군사 전략, 철학, 과학, 그리고 주로 구원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점차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사랑과 기쁨, 고통과 박해, 두려움과 희망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수집되었으며, 교회는 점차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쓰여졌습니다. 저자, 시대, 장르, 주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놀라운 메시지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베웨가 전하는 세계 교회의 목소리입니다 .

그는 성경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계시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와서 경건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앉아야지, 그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야고보서 1:21, 요한복음 12:48과 비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자신의 욕망과 모순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의도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성한 본질이 요구하는 경의입니다. 이것은 콘라드 무베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 이 책, ESV 글로벌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란 진리를 가르치고 순종을 명령할 권리를 의미하며, 따라서 성경적 권위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순종을 명령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여러 번 인용된 시편 19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나님의 지시, 증거, 계명, 명령, 경외, 규례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다룬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네 가지 목적을 위해 성경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디모데후서 3:16).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촉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디모데후서 4:1-5). 앞서 다룬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베드로는 성경에 관해 가르치고 교회에 그에 따라 경고합니다. 인용문은 “너희는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입니다(19절).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감을 주셨으므로,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성경을 신학과 윤리에 대한

우리의 권위로 여깁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정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의 규칙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정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종교를 만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정도는 우리가 무심코 우리 문화의 신학과 윤리를 따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선호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겸손한 청취자로 남을 뿐, 비평가, 편집자 또는 편집자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고 싶은 것을 골라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최고 권위자로 주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듯이,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선지자 자신의 해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언도 사람의 뜻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했습니다(베드로후서 1:20, 21).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경험, 개성, 생각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말하고 쓸 때는 지시하십니다.

따라서 영감은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은 활동적인 인간 저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이 영감은 또한 언어적이며, 실제 기록(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말씀을 의미하며, 단순히 선지자들이 말한 생각(베드로후서 1:20, 2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과 160편의 일부만이 아니라요. 당신의 말씀의 총체는 진리이며, 당신의 모든 의로운 규칙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결과 성경은 무오하며, 그것이 확인하는 모든 면에서 진실합니다.

카슨은 요약합니다. 영감은,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의 인간 저자에 내린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그들이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이 쓰도록 의도하신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카슨은 이 정의가 인간 저자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행동과 그 결과로 나오는 텍스트의 본질을 모두 말한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영감에는 하나님의 언어적 계시와 역사적 인간 증언, 인용문,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달하기로 택하신 진리, 그리고 개별 인간 저자의 특정 형태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카슨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성경은 진실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에 권위가 있으며,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행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며, 디모데후서 3:15에서 4:5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주님,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20:28에서 31까지, 요한일서 5:12와 13. 성경을 완전히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은 확신을 가져다주지만, 또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무오성은 성경 사본이 아니라 원본 텍스트인 자필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과정을 존중하고 텍스트 비평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변형은 무오한 원본 텍스트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무오성은 성경이 동시에 인간의 책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인간적인 면을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면은 성경의 진실성을 떨어뜨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제 사람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사용하여 실제 필요를 가진 실제 사람들에게 글을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 저자들은 평범한 형식과 스타일을 지녔으며, 따라서 무오성에 필요하지 않은 특정한 것들이 있다.

여기서 저는 성경 무오성에 대한 시카고 성명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 여기 있습니다. 우선 짧은 성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의 목록이 있습니다.

짧은 진술, 진실이시며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영감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자 주님, 구세주이자 심판자로 통해 잃어버린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성령에 의해 준비되고 감독받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성경이 다루는 모든 문제에 대해 틀림없는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확인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로 믿어야 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해야 하며, 그것이 약속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신성한 저자인 성령은 그의 내적 증거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합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그리고 구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나 잘못이 없습니다.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행위, 세계사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서의 그 자체의 문학적 기원에 대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증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이 완전한 신적 무오성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거나 무시되거나 성경 자체와 상반되는 진리 관점과 관련하여 만들어지면 불가피하게 손상되며, 그러한 실수는 개인과 교회 모두에게 심각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시카고 성경 무오성 성명과 긍정 및 부정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에 열린 국제 성경 무오성 대회 결과였으며,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복음주의자와 교회가 성경의 무오성 , 성경의 해석, 마지막으로 성경의 적용에 관한 서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과제인 무오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큰 단결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과제인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단결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해석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Zondervan에서 출판한 책 중에는 이 성경 무오성 회의의 결과물인 책들이 있습니다. 시카고 성명서는 무오성을 정의하고, 긍정하고, 명확히 하는 첫 번째 과제의 일부였기 때문에 초기 작품이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조항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명확히 합니다.

제1조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확언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교회, 전통 또는 다른 인간적 출처에서 권위를 받는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제2조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구속하는 최고의 기록된 규범이며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고 확언합니다.

우리는 교회 신조, 공의회 또는 선언이 성경의 권위보다 크거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전혀 권위가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따라서 스크립투라는 우리가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결정보다 성경을 일관되고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3조, 우리는 기록된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임을 확언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영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단지 계시에 대한 증인이거나, 만남에서만 계시가 되거나, 그 타당성을 위해 사람들의 반응에 의존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부인의 일부는 신정통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제4조, 우리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언어를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 사용자이자 언어 수신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간 언어가 우리의 피조물에 의해 너무 제한되어 신성한 계시의 수단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또한 죄로 인한 인간 문화와 언어의 타락이 하나님의 영감 사역을 좌절시켰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5조에서 우리는 성경, 거룩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었다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계시를 성취할 수 있는 이후의 계시가 그것을 교정하거나 모순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성서가 완성된 이후로 규범적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런 종류의 진술은 위원회가 침례교, 장로교, 웨슬리안, 카리스마, 오순절교 등 다양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성경이 모든 사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오늘날 유효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적 영적 은사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심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성경에 종속되어 있으며, 매우 현명한 움직임입니다. 제6조는 성경 전체와 모든 부분, 심지어 원문의 단어까지도 신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감이 부분 없이 전체에 대해 정당하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7조는 영감이 하나님께서 인간 작가들을 통해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신 일이라고 확인합니다. 성경의 기원은 신성합니다. 신적 영감의 양식은 우리에게 여전히 큰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영감의 산물, 결과와 훨씬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수단이나 방식, 실제로 영감을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7조에서 영감을 인간의 통찰력이나 어떤 종류의 고조된 의식 상태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앞서 다루었던 영감에 대한 직관과 깨달음 이론 중 일부를 부인합니다. 8조에서 우리는 영감을 주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고 준비한 작가들의 독특한 개성과 문학적 스타일을 활용하셨다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작가들이 자신이 선택한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개성을 무시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9조에서 우리는 영감이 전지전능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성경 저자들이 말하고 쓰도록 감동을 받은 모든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발언을 부여했다고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사탄이나 악한 사람들의 말을 주고 그들의 거짓말을 진실되게 기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0조에서 우리는 이러한 저자들의 유한성이나 타락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에서 필연적으로 또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나 거짓을 도입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10,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영감은 성경의 자필 본문에만 적용되며,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 가능한 사본에서 매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의 사본과 번역본이 원본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자필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부재가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주장을 무효화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성경, 제11조가 신의 영감으로 주어졌으므로 무오하다고 확인하며, 따라서 우리를 오도하기는커녕, 다루는 모든 문제에서 참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면서도 주장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무오성과 무오성은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참입니다: 무오성. 그 말과 가르침은 무오합니다.

그것들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진리와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12조, 우리는 성경 전체가 무오하며, 모든 거짓, 사기 또는 기만에서 자유롭다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과 무오성이 역사와 과학 분야의 주장을 제외한 영적, 종교적 또는 구원적 주제에 국한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또한 지구

역사에 대한 과학적 가설이 창조와 대홍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뒤집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저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지구의 나이와 대홍수의 범위에 관해 확실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덧붙일 수 있으며, 제 개인적인 이해로는 성경이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주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선한 사람들은 지역적 홍수와 보편적 홍수를 고수합니다. 바울도 같은 보편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복음을 지구 끝까지 전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그가 당시 지구가 가지고 있다고 이해했던 지구 끝까지를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홍수에 대한 언어는 모세가 당시에 존재한다고 이해했던 지중해 세계를 말합니다.

제13조, 우리는 성경의 완전한 진실성과 관련하여 무오성을 신학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 사용이나 목적과 맞지 않는 진실과 오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또한 현대적 기술적 정밀성의 부족, 문법이나 철자의 불규칙성, 자연에 대한 관찰적 설명, 허위의 보고, 과장법과 둥근 숫자의 사용, 자료의 주제별 배열, 자료의 다양한 선택과 평행한 설명, 또는 자유로운 인용의 사용과 같은 성경적 현상에 의해 무오성이 부정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당신은 이것들이 중요한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그렇고, 그것들은 성경 자체를 들으려는 시도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저는 표준이 된 성경의 권위에 대한 큰 책, 큰 책을 읽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주 묻는 질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무오성은 천 가지 자격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14조,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과 내적 일관성을 확언합니다.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장된 오류와 불일치가 성경의 진실 주장을 훼손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15조에서 우리는 무오설이 영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조정이나 그의 인간성의 자연적 한계에 대한 호소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 예수는 더 잘 알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시대의 잘못된 견해에 적응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어떤 종류의 오류에도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로들의 전통에 호소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니요, 그의 인간성의 한계는 그가 신인이며, 그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신성한 힘을 사용하여 진실을 말합니다. 16조, 우리는 무오설이 교회의 역사 전반에 걸쳐 교회의 신앙에 필수적이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무오설이 스콜라주의 개신교가 발명한 교리이거나 부정적인 고등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가정된 반동적 입장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17조,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을 증거하시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진실성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 증거가 성경과 분리되어 또는 성경에 반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18조, 우리는 성경의 본문은 그 문학적 형태와 기법을 고려하여 문법적 -역사적 주해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어떠한 취급이나 그 뒤에 있는 출처에 대한 탐구의 합법성을 부인하며, 그것이 텍스트의 가르침을 상대화하거나, 비역사화하거나, 무시하거나, 저자에 대한 주장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조항인 19조에서, 우리는 성경의 완전한 권위, 무오성, 무오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독교 신앙 전체를 건전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고백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점점 더 순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오성이 개인과 교회 모두에게 중대한 결과 없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부인합니다. 저는 시카고 성명서의 성경 무오성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작은 여담이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평범한 형식과 스타일로 글을 씁니다. 따라서 무오성에 필요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시카고 성명서의 성경 무오설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서 그 자격으로 일했습니다. 이제, 성경의 권위 아래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성경의 무오설.

무오성은 주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저자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구절의 단어, 문장, 맥락, 장르, 주장, 주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의 의미는 저자의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도. 무오성은 해석학, 즉 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오성에 대한 헌신은 성경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통일성과 교리적 일관성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신앙의 해석적 유추, *analogia fidei*, 또는 *regula fidei*, 규칙, 신앙의 유추, 신앙의 규칙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고 전체적인 메시지와 조화롭게 해석합니다. 성경의 유추는 성경의 규칙이 성경이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가장 좋은 해석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자체의 유일한 해석자는 아닙니다.

정경에 대해 한두 마디 했어야 했는데, 정경은 매우 중요하고, 이 강의에서 정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인 데이비드 G. 던바의 탄탄한 에세이, 방대한 에세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시카고의 제품 중 하나인 책의 성경 정경, 국제 성경 무오성 회의의 제품 중 하나, 아니면 국제 성경 무오성 위원회의 제품 중 하나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석학, 권위, 정경에 대한 성경 정경.

던바는 교부 이레네우스가 이미 가르쳤듯이, 교회가 정경을 확립하기보다는 정경, 즉 성경의 권위 있는 책을 인정했다고 제안합니다. 정경은 사도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론적이거나 구속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공동체에 해석된 예수의 말씀과 행위가 초기 교회의 기준을 형성했습니다.

교회는 사도성을 정경 인정의 자격 요소로 여겼는데, 사도의 엄밀한 저작이 아니라 내용과 연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통제를 인정합니다. 성경은 권위 있고 무오할 뿐만 아니라 무오합니다.

19세기 중반까지 무오(infallible)라는 용어는 무오(inerrant)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오(inerrant)는 오류가 없거나 진실함을 의미했습니다. 무오(inerrant)는 오류가 없거나 진실함을 의미했습니다.

무오성은 오류가 없거나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 연구의 최근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케빈 반 후저는 더 광범위한 정의를 제안합니다. 무오성은 무오성의 하위 집합입니다.

우선, 밴 후저는 성경의 완전한 무오성을 확언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오성이 더 큰 집합이며 무오성 은 그 하위 집합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오성, 모든 성경은 모든 유형의 문학에서 무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담이 무오하다고 말하거나 우화가 무오하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우화의 주된 목적은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올바른 어리석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화는 독자들이 끌려들어 강요당하고 결정에 직면하게 되는 전체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비유는 무오한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장르의 비유는 무오성이 적용되는 한 무오합니다. 즉, 진실 또는 오류의 문제인 한 무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실과 오류의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이 벤 후저의 요점이다. 그에 따르면 무오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장르를 통해 많은 것을 틀림없이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무오합니다. 케빈 반 후저는 오류가 있는 경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전은 무오성이라는 범주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습니다.

어떤 장르에서든 성경이 전달하는 모든 진실은 항상 무오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각각을 무오하게 하지만, 지혜도 줍니다.

경고합니다. 오류 없는 경고? 물론, 그 경고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 못하시나요? 경고는 진실 그 이상입니다.

경고입니다. 이것은 사역, 성경 이해, 해석학, 그리고 성경 적용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경은 격려합니다.

그것은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구절들의 목적이 고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활력을 불어넣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유형의 성경 문학을 사용하시며, 모든 다른 유형을 사용하여 그의 많은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틔우며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뜻한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성공하리라. 거기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포함됩니까? 네.

하지만 여기 케빈 후지어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요. 그것이 무오한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오류보다는 진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수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이 메시지에 연결하셨기 때문에 이 오류 없는 말씀이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로마서 10:17.

믿음은 듣는 것에서 오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히브리서 4:12, 13. 광야에서 죽어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 유대인들과 달리,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칼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그의 눈앞에서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고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후지어의 제안은 어떤 식으로든 무오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오성이 진실과 오류의 스펙트럼을 다룬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성경은 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을 진실로 기록한 것이라고 암시하는 시카고 성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양한 문학적 형태는 그 설명이 적용되는 한 무오하지만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밴 후지어는 무오성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무오하고 거룩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풀어주신 웅변의 힘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성경, 영감의 결과, 무오성과 무오성의 구별입니다.